생명공학연구원, 바이오신약 연구센터 착공

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5월23일 정우택 충북지사를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창 바이오신약연구센터 기공식을 가졌다.

오창캠퍼스 부지 1만1880㎡에 19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,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 바이오신약연구센터는 분자표적, 신약개발, 약리약효연구센터와 연구지원센터 시설을 갖추고 항암제 및 분자표적 후보물질,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 천연물질 등 신약을 연구개발한다.

바이오신약연구센터는 2005년 가동에 들어간 국가 영장류센터와 2007년 하반기에 완공될 바이오평가센터에 이은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의 3번째 연구시설이다.

오창캠퍼스에는 2016년까지 바이오나노시스템연구센터, 바이오신약상용화센터, 재생의학연구센터, 생물자원센터, 임상연구센터, 미니돼지연구센터 등 6개 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7/05/23>